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별 조절효과의 융합적 접근-

권오형, 문재우*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n Mobile Phone Dependency -A convergent approach to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Gender-Moderating effects-

Oh-Hyoung Kweon, Jae-Woo Moon*
Division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등학교 4학년 4차중 중학교 1학년 1,972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는 SPSS 21.0이 사용되었다.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사이에서 갖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방식은 자아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휴대전화 의존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자아탄력성은 휴대전화 의존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두변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했다. 성별은 두 변수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과도한 휴대전화 의존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어 : 긍정적 양육방식, 휴대전화 의존도, 자아탄력성, 성별, 융합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direction to reduce adolescents' mobile phone dependency. The fourth data for 4th graders who were 1,972 of 7th from the 2013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were used. SPSS 21.0 was used.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gender-moderating effects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mobile phone dependency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dat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increased ego-resiliency while lowering mobile phone dependency. Ego-resiliency had a negative influence on mobile phone dependency and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 two variables. Gender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two variabl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a direction to cope with the problems which can result from the excessive use of mobile phone for both parents and their children.

Key Words : positive parenting attitude, mobile phone dependency, ego-resiliency, gender, convergence

*본 논문은 권오형의 박사학위 논문(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2017, 한세대학교)을 수정, 보완하여 재작성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Moon, Jae Woo(moon1229@hansei.ac.kr)

Received July 16, 2018

Revised August 2,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1. 서론

오늘날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발명품중의 하나는 휴대전화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휴대전화의 보급 증가는 인류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한 피해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휴대전화로 인한 피해사례는 특히 청소년에게 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기준 조사인원 15,000명(만3세~59세)중 14.2%가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라 하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금단·내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 청소년에게 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중학생의 경우 그 중독률이 33.0%로 대학생 20.5%, 초등학생 26.7% 및 고등학생 27.7%보다 월등히 높았다[1].

휴대전화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청소년은 학업에 적응도가 떨어지며, 사회, 학교생활, 가족,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2,3]. 또한 신체적 통증을 유발하며[4], 우울, 스트레스, 수면장애의 정도가 높다[5,6].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연구는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7], 휴대전화 과다사용으로부터 오는 신체적, 정신적 폐해[5]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자아존중감[8], 공격성, 충동성, 외로움[7], 자아탄력성[9] 등의 내부요인과 부모, 가족관계,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8]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외부요인과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온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선택했을 때 자아탄력성과 학습능력이 향상되며, 휴대전화 의존도는 감소된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자녀의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10].

자아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에게는 높은 휴대전화 의존도로 부터 오는 부작용이 보다 심각하다[11].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 일수록 위기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대처방법을 선택하여 위기 상황을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삼는 능력도 뛰어나다[12].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은 청소년

의 휴대전화 사용빈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3].

초기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은 또래애착이 남학생보다 강해 휴대전화 의존도가 남학생보다 높다[14]. 그러나 부모 학대, 일탈, 비행 경험이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우울, 주의집중 곤란, 사회적 위축이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15]. 이는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처하는 방법이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달리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긍정적 자녀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자녀의 탄력성 역시 과도한 휴대전화 의존도로부터 오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추론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사이에서 갖는 매개역할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 청소년들이 흔히 직면할 수 있는 과도한 휴대전화 의존도로부터 오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즉, 부모가 휴대전화 과다사용의 자녀에 대해 성별 및 특성별 적절한 양육방식을 선택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이는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단순히 나열하여 분석하는 것 보다 자아탄력성 및 성별의 본인 요인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라는 외부요인을 분리하여 접근하면 보다 입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문제 해결 접근을 자녀나 부모에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 접근이 될 수 있음은 물론 효율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자녀와 부모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자녀의 과도한 휴대전화 의존도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목적에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긍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 [연구문제 2] 긍정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높일 것인가?
- [연구문제 3] 자아탄력성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 [연구문제 4]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문제 5] 성별이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인가?

인 문항이다. 애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하기 위해 4문항을 역코딩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해 발간된 초등학교 4학년 4차 자료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중학교 1학년 1,972명이다. 본 표집은 층화 다단계집락표집 방식에 의해 표집 되었다.

2.2 척도

2.2.1 부모의 긍정적 양육 방식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허묘연에 의해 제작된 부모 양육방식 척도를 수정 후 사용하였다[16]. 허묘연의 부모 양육방식 척도중 긍정적 양육방식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3개 항목만 사용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감독 (3문항), 애정(4문항) 및 합리적 설명(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10문항이며, 이들의 Chronbach's α 값은 .878이다.

2.2.1.1 감독

감독은 '방과 후에 내가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외출할 경우 내가 언제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의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1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독의 정도가 높게 하기 위해 3개의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2.2.1.2 애정

애정은 '보모님께서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좋아한다는 표현을 내게 하신다', '힘들어 할 때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 '칭찬을 잘 해 주신다'의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1점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있다. 4문항 모두 긍정적

2.2.1.3 합리적 설명

합리적 설명은 '보호자(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혼내기 전에 먼저 설명해 주신다', '무리한 요구를 내가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의 3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1점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다. 3문항 모두 긍정적인 문항이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 설명의 정도가 높게 일치시키기 위해 4문항을 모두 역코딩하였다.

2.2.2 휴대전화 의존도

이시형 외에 의해 구성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문항을 휴대전화 의존도 척도로 사용하였다[17]. 본 척도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문항은 부정적인 답변일수록 점수가 높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총 7문항을 역코딩하여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도록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점점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휴대하지 않고 나가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를 통하여 한참 동안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을 하다가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혼자 있을 때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 없다',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듯 한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 없을 때는 불편해서 살 수 없다'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1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휴대 전화 의존도의 Chronbach's α 값은 .895이다.

2.2.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2002년 유성경·심혜원이 1996년 Block & Kreman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18,19]. 문항 내용은 2003년 권지은에서 재인용하였다[20].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는 4

점 리커트 척도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1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다. Chronbach’s α 값은 .875이다. 14문항을 역코딩하여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했다.

문항구성 내용은, ‘내 친구에게 나는 너그럽다’,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나는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나는 즐긴다’, ‘나는 매우 힘(에너지)이 넘치는 사람이다’, ‘같은 장소를 갈 때도 늘 가던 길 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 보다 나는 호기심이 많다’, ‘보통 행동하기 전에 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나의 생활은 항상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나는 금방 괜찮아진다’,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좋다’로 구성되어 있다.

2.2.4 성별

명목척도인 성별은 1=남자, 2=여자 이다. 여자=0, 남자=1로 더미 처리하여 사용했다.

2.3 연구방법

본 연구에는 SPSS WIN21.0이 사용되었다. 각 척도별 신뢰도를 분석하여 신뢰도를 확보했다. 각 변수의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하여 정규분포 가정 여부를 확인 했다. 상관 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Baron & Kenny의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여부를 확인하였다[21].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주요 변수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각 변수들의 문항 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10문항, 자아탄력성 14문항, 성별 1문항 및 휴대전화 의존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도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1,971이며,

그 외는 1,972 이다. 변수별 최대값 4, 최소값은 1 이다. 평균값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3.149로 가장 높고, 표준편차 값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712로 가장 높다. 변수별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첨도는 ± 3 을 유지하며, 왜도는 ± 2 이하를 유지하여 정규분포의 기준값을 충족하여 각각의 변수들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1,972)

variables	Q.N	N	Min	Max	M	S.D	Skewness	Kurtosi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10	1,971	1.00	4.00	3.149	.488	-.256	.316
ego-resilience	14	1,972	1.00	4.00	3.00	.449	.144	.380
mobile phone dependency	7	1,972	1.00	4.00	2.75	.711	-.334	-.221

각 변수별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종속변수인 휴대전화 의존도는 부(-)적 상관($r=-.204$)이 있으며,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과는 정(+)적 상관($r=.430$)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높으면 휴대전화 의존도는 낮고 자아탄력성이 높다. 휴대전화 의존도와 자아탄력성은 부(-)적 상관($r=-.131$)이 있어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휴대전화 의존도는 낮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는 ($r=.430$)에서 ($r=.074$)구간을 나타내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s	1	2	3
1	1		
2	.430**	1	
3	-.204**	-.131**	1

note) *) $p < .05$, **) $p < .01$, ***) $p < .001$
 1. positive parenting attitude 2. ego-resilience
 3. mobile phone dependency

3.2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및 자아탄력성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방식 및 자아탄력성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Model 1], [Model 2], [Model 3]의 F값은 각각 3.166(p<0.01), 63.968(p<0.001) 및 11.981(p<0.001)로 회귀분석 모델로 적합했다. 또한 설명력 R²값은 .009, .079 및 .085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변수 간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는데 적합했다. VIF값은 1.004~1.282의 분포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Table 3. Influence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ego-resiliency to the mobile phone dependency

variables	Model 1 (CV→DV)		Model 2 (CV.IDV→DV)		Model 3 (CV.IDV.MV→DV)	
	β	t	β	t	β	t
(constant)	22.584***		14.594**		15.011**	
family annual income	-.030	-1.233	-.015	-.647	-.015	-.611
mother's employment	.018	.725	.016	.681	.017	.712
parental life satisfaction	.014	.581	.029	1.213	.033	1.372
health	-.002	-.076	.004	.172	.010	.432
grade satisfaction	-.088	-3.648***	-.043	-1.820	-.040	-1.698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	-.169	-7.103***	-.129	-4.866***
ego-resiliency	-	-	-	-	-.091	-3.461**
R ²	.009		.079		.085	
F	3.166**		63.968***		11.981**	
Durbin-Watson			1.889			
VIF			1.004~1.282			

note) *)p<.05, **)p<.01, ***)p<.001.

[Model 1]에서 주관적 성적만족도가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 β값은 -.088(p<.001)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스스로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는 낮았다.

[Model 2]에서 독립변수가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β값 -.169(p<.001)로 긍정적 양육방식이 높으면 휴대전화 의존도는 낮았다.

[Model 3]에서는 긍정적 양육방식의 영향력인 β값은 -.129(p<.001)로 [Model 2]와 비교해 감소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인 β값은 -.091(p<.001)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휴대전화 의존도는 낮았다.

3.3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사이에서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Baron & Kenny 방식[21]에 의해 실행하였다. 그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variables	Step 1 (IDV→ MV)		Step 2 (IDV→ DV)		Step 3 (IDV.MV→ DV)	
	β	t	β	t	β	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430	21.144***	-.204	-9.230***	-.181	-7.416***
ego-resiliency	-	-	-	-	-.052	-2.146*
R ²	.185		.041		.044	
F	447.080***		85.188**		44.976**	
Durbin-Watson	1.976		1.919		1.915	
VIF	1.000		1.000		1.227	

note) *)p<.05, **)p<.01, ***)p<.001

[step 1], [step 2] 및 [step 3]의 F값은 447.080(p<.001), 85.188(p<.001) 및 44.976(p<.001)이었다. 또한 설명력 R²값은 각각 .185, .041 및 .044로 각 단계에서 회귀분석 모델로 적합하였다. VIF값은 각 단계 별로 1.000, 1.000 및 1.22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step 1]에서 긍정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 β값은 .430(p<.001)이었다. [step 2]에서 긍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인 β값은 -.204(p<.001)로 부(-)의 영향을 미쳤다. [step 3]에서는 자아탄력성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인 β값은 -.052(p<.05)로 부(-)적으로 유의미했다. 긍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인 β값은 -.181(p<.001)로 [step 2]의 영향력인 β값 -.204(p<.001)보다 감소했다. 즉 긍정적 양육방식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며,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변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했다.

3.4 Sobel test에 의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Sobel

test를 하였다. Sobel test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이 갖는 Sobel test 값은 $-2.117(p<.05)$ 이었다. 즉, Sobel test 결과에서도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독립변수)과 휴대전화 의존도(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Table 5.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by sobel test

sub variable	sobel test statistic	p
positive parenting attitude→ ego-resiliency→ mobile phone dependency	-2.117*	.034

note) *) $p<.05$, **) $p<.01$, ***) $p<.001$.

3.5 성별의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전 센터링작업 및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에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각 Step 별 F값은 $83.758(p<.001)$, $60.837(p<.001)$ 및 $3.308(p<.05)$ 이며, 설명력 R²값이 .078, .106 및 .109로 점차 증가하여 회귀분석 모델로 적합했다. VIF값은 1.010~1.05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Table 6. Gender-moderating effects

variables	Step 1 (IDV→ DV)		Step 2 (IDV,MD→ DV)		Step 3 (IDV,MD,→ DV)	
	β	t	β	t	β	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184	-8.462**	-.169	-7.842**	-.165	-7.619**
gender(f=0, m=1)	-	-	-.169	-7.800**	-.171	-7.884**
IDV * MD	-	-	-	-	-.056	-2.572*
R ²	.078		.106		.109	
F	83.758**		60.837**		3.308**	
Durbin-Watson	1.903					
VIF	1.010~1.059					

note) *) $p<.05$, **) $p<.01$, ***) $p<.001$

Step 1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β 값은 $-.184(p<.001)$ 였다. Step 2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력 β 값은 $-.168(p<.001)$ 이며,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값 $-.169(p<.001)$ 였다. Step 3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값 $-.165(p<.001)$,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값 $-.171(p<.001)$,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값 $-.056(p<.05)$ 이었다. 따라서 성별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조절역할을 하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4. 결론 및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에 의한 결론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었다. 이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이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춘다는 연구[10].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는 변수임을 밝힌 연구[22]와 일치한다. 청소년 시기는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하나 아직 완전히 독립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역시 부모 환경으로부터 중요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높은 휴대전화 의존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자아탄력성을 높였다.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23], 가정에서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향상된다는 연구[24]와 일치한다. 긍정적 양육방식은 자아탄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과도한 휴대전화 의존도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적이거나 억압적인 태도로 대하기보다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대화를 자주 갖는 등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과도한 휴대전화 의존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었다. 자 기조절 효능감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25]와 맥락을 같이 한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 화 의존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했다. 자아탄력성의 개 입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녀를 둔 부모는 가정 내에서 가 족과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민주적으로 대할 때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휴대전화 의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양육방식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아울 러 자녀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함양의 프로그램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성별은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에서 조절역할을 했다.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때 여학생이 남학생 보 다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부모가 휴대전화 의존도가 과다하게 높은 자녀와 직면 했을 때 성별을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해야 하며, 부모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전 화 의존도 관련 프로그램 운영자 역시 이를 감안해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들의 과도한 휴대전화 의 존도 문제에 접근은 단편적이기 보다 내, 외부요인 및 청 소년의 특성 및 성별을 감안한 융합적 접근이 보다 유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주관적 성적 만족도, 건강, 부모의 삶 만족도 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 건강을 염두에 두었을 때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바람직한 방 향으로 이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외부요인중 긍정적 양육방식 요인에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다양한 주변사회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변화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셋째, 최근 휴대전화기의 기술진보 등의 이유로 휴대 전화기의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면에 지 나치게 치우친 경향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의 특성상 특정 시점을 기준 으로 실시되어 다양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 시기의 휴대 전화 의존도 변화양상을 추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학교, 학부모 및 관련기관에게 청소년의 자아탄력 성 증진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제시했다. 또한 긍정적 양 육 방식의 중요성 및 과도한 휴대전화 의존도에 직면한 자녀의 지도는 자아탄력성의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프 로그램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Y. O. Yun, H. B. Hoang, Y. R. Kim, J. S. Lee & M. G. Kim. (2016). *2016 Statistics on the Youth Seoul* : Sta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2] J. I. Hwang & J. H. Shin. (2013). Computer Education Curriculum and Instruction : A Study 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Educational Program to Intervene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Smart phone Addic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6(4), 23-31
- [3] H. J. You.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xperience of Abuse for Early Adolescent, Depression, Aggression, Social Withdrawal, and Mobile Phone Dependency: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1(12), 417-446.
- [4] K. H. Hwang, Y. S. Yoo & O. H. Jo. (2012). Smart 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365-375.
- [5] C. S. Ko. The Effects of Addictive Cell-phone Use of Adolescence on mental health.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 Youth Culture*, 30, 8-36.
- [6] T. Sara, H. Annika & H. Maths. (2011). Mobile phone use and sterss, sleep disturbance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a prospective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11-66.
- [7] J. Oh. (2014). A Study on the Major Factors to Teenagers' Addiction to Smart-Phone. *Koean Association of Welfare Administration*, 24(1), 47-76.
- [8] A. R. Lee & K. I. Lee. (2012). The effects of parental factors, friend's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 addictive mobile phone use of children.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21(2), 27-39.
- [9] K. A. Jung & B. W. Kim. (2014). The Effects of the Ego-Resilience on the Smart-phone us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1(11), 55-74.
- [10] Y. M. Kim & Y. S. Lim. (2012). Structural Model of Democratic Parenting Style, Ego-resilience, Cell phone Dependency, Self-directed Learning.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65, 273-299.
- [11] G. Y. Cho & Y. H. Kim. (2014).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632-1640
- [12] I. S. Um. (2012).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Self Resilienc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2(2), 51-70.
- [13] Y. C. Kim. (1999). Relationship among Peer Attachment, Ego-resiliency and mobile phone dependence of Community children's center for childre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3), 145-157.
- [14] H. S. Kim & Y. J. Choi. (2015). The Gender Difference in Predictors of Mobile Phone Dependency in Youth.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5), 340-342.
- [15] B. G. Kang & H. J. Shin. (2014).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ffecting Mobile Phone Addiction in Adolescence: With a Special Focus on the Comparison by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213-241.
- [16] M. Y. Huh. (2004).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7] S. H. Lee, E. Y. Na & S. Y. Lee. (2002). Study for Mobile Phone Using of Youth & the Effect. Socio-Mental health Research. *Samsung Medical Center*. 2002(1).
- [18] S. K. Yoo & H. W. Shim.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 [19] J. Block & A. M. Kre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20] J. E. Kwon.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s, Attachment Peers, modes of problem solving and Ego-Resilienc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1]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22] S. J. Jang, S. W. Song & M. A. Jo. (2011). The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y,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ttachment to Peer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Youth Resarch Association*, 18(12), 431-451.
- [23] Y. M. Lim. (2013). Exploration of variables effecting on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and self-esteem : Focusing o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quality of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2), 147-167.
- [24] J. Y. Jung & J. H. Lim. (2013).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1), 37-51.
- [25] H. S. Yoo & K. O. Min. (2015). Effect of Mental Health, Academic Self Efficacy, School Life Adjustment on Cellular Phone Addiction of Elementary.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24(1), 213-227.

문 재 우(Moon, Jae Woo)

[정회원]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우울, 자살, 건강
- E-Mail : moon1229@hansei.ac.kr

권 오 형(Oh-Hyoung Kweon)

[정회원]



- 1988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 2012년 2월 :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7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산업복지, 아동복지, 사회정책
- E-Mail : aag78@naver.com